제주시론

뇌록소(磊綠所)를 아시나요

〈6775〉



오 상 학
제주대학교 교수
지리교육과
논설위원

과거에 제작된 고지도에는 문헌 사료에 보기 힘든 내용이 수록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조선시대 제주도를 그린 지도에서도 지리지나 다른 문헌에 없는 지명이나 장소를 볼 수 있는데, 뇌록소(磊綠所)도 그 중의 하나이다. 18세기에 제작된 군현지도책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를 자세히 보면 뇌록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제주성 안의 산지천 동쪽 편에 지금의 금산으로 보이는 산 아래에 뇌록소라고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뇌록소의 존재에 대해 『탐라지』와 같은 지리지나 다른 문헌에는 언급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렇다면 뇌록소의 정체는 무엇일까? 뇌록소는 뇌록이라는 광물을 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뇌록은 셀라도나이트(Celadonite)를 주성분으로 하는 철분이 풍부한 층상규산염 점토광물이다. 화산암의 기공이나 균열이 저온의 열수 변질을 거치면서 형성된 2차 광물이다. 뇌록은 무르고 가루 내기 쉬우며 내광성과 방부, 항균성이 뛰어나 전통 목조건축 단청의 바탕칠용 녹색 천연 안료로 사용되었다. 목재 표면을 덮어 습기나 병충해로부터 건물의 부식을 막는 보존 기능과 조선 건축물 특유의 장엄한 푸른빛을 내는 시각적 기능을 동시에 지닌 중요한 안료였다.

뇌록은 현무암질 화산쇄설암이 열수 교대작용을 받아 형성되는 광물 특성상 특정 지질대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조선시대 뇌록의 최대 산지는 지금의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뇌성산 일대로 남한의 유일한 대규모 국가 공납 산지였다. 북한의 황해도 풍천군과 평안도 가산군 등지에도 뇌록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뇌록소는 문헌 기록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보아 제주의 자체 수요에 조달했던 소규모 산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포항 뇌성산의 뇌록은 대규모의 화산 활동 이후 지하의 뜨거운 열수가 현무암 내부의 절리를 따라 순환하며 모암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이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다. 제주도 역시 화산섬으로 화산 활동의 과정에서 뇌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포항 뇌성산의 뇌록산지는 2013년 숭례문을 복원하면서 칠한 단청이 벗겨지자 전통 단청의 핵심 원료인 국산 뇌록의 원산지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2013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47호로 공식 지정되었다.

포항시는 천연기념물인 뇌성산 뇌록산지를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현장 보존 및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통 안료의 학술 연구와 문화유산 활용을 모색하면서 뇌성산 뇌록산지 뇌록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의 고지도에 표시된 뇌록소는 역사 속에 묻혀졌던 제주도의 뇌록소를 발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제주의 뇌록소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화산섬 제주의 지질학적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학술적 가치와 조선시대 전통 건축물의 안료를 자체 조달하여 활용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치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기억 속에서 사라진 뇌록를 캐낼 필요가 있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잦은 비로 제주 농작물 피해 확산…농가 시름

지난달부터 계속된 잦은 비날씨로 제주지역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농가들은 재해보험 보상받기도 어려워 시름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10월 강수량은 275.5㎜로 평년(91.6㎜)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도내 전체 콩 재배면적(4229ha)의 80% 이상에서 수확 전 꼬투리 안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현상 등으로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메밀(1132ha)과 녹두(185ha)에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곰팡이 균이 번지면서 각각 '검은무늬병'과 '시들음병' 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은 집중호우의 경우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 이상일 때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일반적인 곰팡이균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브로콜리·양배추 재배농가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 김승준 의원은 지난 23일 "웬만한 농가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최근 브로콜리와 양배추의 곰팡이병 피해는 보험회사에서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별도로 정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지난 20일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 일대에서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농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을 벌여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품목별 자조금을 통해 브로콜리는 피해 농가당 20만원의 방제 비용을 지원하고, 600톤을 1㎏에 600원씩 매입해 가격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양배추는 현장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면 12월에 재파종 비용과 농약대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제주도의 농작물 피해 지원이 농가들의 손실을 전액 충당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춘하추동

시험공화국의 민낯

시험(試驗)은 지식, 기술, 능력 따위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문제나 질문, 행동 등의 절차를 통해 실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테스트(Test)라고도 부른다. 세상엔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활용 분야, 출제 유형과 평가 방식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존재한다.

시험은 인간이 사회를 조직하고, 능력을 검증하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해 낸 가장 합리적인 발명품 중 하나다. 시대에 따라 그 형태는 경전 암기에서 현대의 객관식·주관식 시험, 그리고 AI(인공지능) 역량 검사와 포트폴리오 평가로 진화해 왔다.

▲시험의 역사는 고대 중국의 과거제로 거슬로 올라간다. 587년 수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과거제는 당·송나라를 거치며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기에 '개천에서 용 나는 통로'였다. 수천 년간 동아시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유다.



우리나라엔 958년 고려 광종 때 왕권 강화 차원에서 과거제가 처음 도입됐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선발하는 중요한 인재 등용문 역할을 했다. 이후 시험은 오랫동안 혈연, 지연, 학연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을 치른다. 초·중·고교 시절엔 정기적으로 내신 평가 시험 등을 보고, 대학생이 되려면 수능을 거쳐야 한다. 대학에 진학해도 학점이 기다리고, 졸업할 무렵엔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공직에 진출하려면 고시나 공무원시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직장에 가서도 승진·승급시험을 본다. 은퇴가 가까워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각종 자격증을 따기도 한다. 그야말로 시험으로 시작해 시험으로 끝나는 '시험 공화국'인 셈이다. 어찌 보면 한국인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시험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법학전문시험과 세무사시험 등 전문직 자격시험은 물론 각종 국가시험, 수능, 입사시험, 대학내 시험, 고교 내신시험 등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 성적이 전통적으로 성공의 척도가 되어 온 '시험 공화국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AI가 시험 문제를 풀고, 인간보다 빠르게 정답을 찾아내는 시대다. 그런 점에서 시험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고 경 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열어 준 복권기금



나의 의견

김 가 연
한서대학교
자유전공학과 2학년

복권기금의 가치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누군가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 기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김대영)이 복권기금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한 '2026 제주 대학생 글로벌 영어 챌린지 캠프'였습니다.

전공 공부에 집중하던 저는 전공 밖의 경험도 해보고 싶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첫 대외 활동이었고 아는 사람 없이 해외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걱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정을 따라가다 보니 낯선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뷰 경험이 없었지만 영어 인터뷰에서 인터뷰어를 맡아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부담스러웠던 에세이 작성과 토익스피킹도 반복해서 연습하며 익숙해졌습니다.

캠프에서 얻은 것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며 익숙한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생활하고 소통한 경험은 생각의 폭을 넓혀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충분히 준비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직접 경험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제주 청년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민장례식장
제주시 연북로 378 (도남동)
24시간 무료상담 및 긴급출동
Tel. 742-5000

중앙병원장례식장
제주시 월랑로 91 (이호2동)
24시간 무료상담 및 긴급출동
Tel. 721-1000

- 도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편의 제공
- 최고수준급 전문 장례지도사와 복지사 대기
- 동시주차 1,000여대의 넓고 편리한 주차장
- 정성스런 음식과 최고의 접객서비스 제공
- 구제주와 신제주 교통요지에 위치한 접근 편의성 (시내버스 50번, 500번, 770번)
- 상조회 가입여부 상관없이 편안하게 이용가능

항상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대접받는 분들의 한 끼 식사 위주로
엄선된 한식 메뉴 전문회사

제주섬돌 출장뷔페

무료상담
010-8599-1542

개업식 / 집들이 / 체육대회 / 돌잔치
/ 야유회 / 결혼식 / 묘제 전문출장

ChosunMedia
조선 IS

조선아이에스는
최고의 Target 광고
전문회사입니다.

전단광고 대행
조선아이에스(주) / 제주지사
▸ PHONE 070-7015-9234
064-900-3666
▸ FAX 064-900-3667
▸ MOBILE 010-3690-4611
▸ E-MAIL ymseock@chosun.com
▸ Homepage www.chosunis.com

제주일보
광고문의
광고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본 사 T.740-6121 F.740-6161
서귀포지사 T.733-1201 F.733-2080

제주일보
구독문의
본 사 T.740-6141